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  
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6. 10.

발 의 자 : 민형배 · 이정문 · 김영배  
조인철 · 이수진 · 문정복  
이연희 · 김용민 · 어기구  
신정훈 · 박홍배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.

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 ·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.

인수위 내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은 한계가 있습니다.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. 대통령당선자 임명직인 고문 · 자문 등도 자격 제한 요건에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

이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

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  
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.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  
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으면서 퇴직 후 3  
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포함했습니다. 방송의  
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  
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10조 및 제19조).

##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6호 중 “위원의”를 “위원, 전문위원의”로, “아니한”을 “아니하였거나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람의”를 “사람, 같은 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위원회 소관사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공무원의”로 한다.

7. 「공직선거법」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8. 제11조의 위원회 소관사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제19조제1항제6호 중 “위원의”를 “위원, 전문위원의”로, “아니한”을

“아니하였거나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람의”를 “사람, 같은 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공무원의”로 한다.

7. 「공직선거법」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제21조의 심의위원회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제3조(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

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 행	개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
제10조(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	제10조(결격사유) ①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   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「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<u>위원의</u>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<u>아니한</u> 사람	6. ----- ----- ----- <u>위원, 전문위원의</u> ----- ----- ----- <u>아니하였거나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</u> -----
<u>&lt;신    설&gt;</u>	7. 「공직선거법」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<u>&lt;신    설&gt;</u>	8. 제11조의 위원회 소관사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·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(생략)

제19조(심의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~ 5. (생략)

6. 「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<신설>

② -----사람,  
-----같은 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 
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 
한 사람 및 같은 항 제8호에  
따른 위원회 소관사무와 밀접  
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  
한 정무직공무원의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심의위원의 결격사유) ① -----  
-----  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  
-----  
-----위원, 전문위원의-----  
-----아니하였거나 대통령직  
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  
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 
지나지 아니한-----

7. 「공직선거법」 제2조에 따  
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 
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


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·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<u>사람의</u>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<u>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u></p> <p>8. 제21조의 심의위원회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<u>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u></p> <p>② -----<u>사람,</u> -----<u>같은 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</u> <u>는 정무직공무원의</u>----- -----.</p>
--	--